

春雪... 호랑이 잠시 쉬었다 가자



KIA-두산전... 프로야구 사상 처음 눈때문에 경기 취소

'춘설'(春雪)에 호랑이와 곰의 대결이 취소됐다.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4차전이 때아닌 눈으로 취소됐다.

한참 진행되고 있을때쯤 잔뜩 흐려있던 하늘에서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빗방울은 이내 눈으로 바뀌었다.

텍사스 출신의 라이트는 "텍사스도 무척 춥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경기하기에 날씨가 너무 춥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몸을 풀면서도 선수들은 혹시 모를 부상에 대한 염려로 '경기 취소'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과의 바람과 달리 경기에 나서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선수도 있었다. 이날 선발로 예정된 이동현은 묵묵히 경기장으로 나가 캐치볼을 하며 마운드 등판을 준비했다.



전국이 쌀쌀한 날씨속에 광주야구장에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두산과의 경기가 취소되자 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기아차, 추신수에 쏘렌토R 전달

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올해 초 출시한 쏘렌토R(수출명: 쏘렌토)을 홍보하기 위해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에게 이 차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서 추신수에게 차량을 전달했다. 기아차는 2008년 추신수를 미국 현지 기아차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모하비(수출명: 보레고)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그랜드캐니온(수출명: 세도나)을 제공한 바 있다.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박찬호가 14일(한국시각) 뉴욕 양키스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전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년의 홈런왕 김봉현 무등골 찾아 후배 격려



이거즈 원로로 조범현 감독 못지않게 많은 인터뷰를 했다"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부탁한다"고 조범현 감독에게 덕담을 건넸다.

'왕년의 홈런왕' 김봉현이 무등골을 찾았다.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KIA의 전신 해태의 '불꽃타선' 중심에 있던 홈런왕 김봉현이 무등경기장에 발걸음을 했다.

타이거즈 시절 27번을 달았던 김 교수는 자신의 배번을 물려받은 김상현에게는 "지난해 홈런왕 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격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후배들이 12년만의 우승을 일궈내면서 타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안방 데뷔전 합격투

구속 150km대... 20닝 1실점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박찬호(37)가 홈 개막전에 등판해 20닝을 무난하게 막고 승리에 이바지했다.

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경기에서 5-0으로 앞선 7회초 등판해 20닝 동안 솔로 홈런을 포함해 2안타를 맞고 1점을 내줬다.

선발 앤디 페이트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박찬호는 2이닝 동안 8명의 타자를 상대로 36개의 공을 던졌으며 26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서희경 상큼한 출발

롯데마트 오픈1R 2타차 2위 국내대회 상금왕 2연패 시동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클래식을 제패한 서희경(24·하이트)이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국내 대회에서 상금왕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15번홀(파5)에서 나온 트리플보기에 발목이 잡혔다. 서희경은 전반에 2타를 풀고 11번홀과 12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서희경은 14일 제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파72·6천25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장정(30·기업은행), 임성아(26·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골프황제 우즈 US오픈 출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US오픈에 출전한다. US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던 우즈가 US오픈 출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이하 한국시각) AP통신이 보도했다.

서희경이 14일 제주 스키이힐 제주 골프코스에서 열린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1라운드 6번홀에서 티샷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는 14일 오후 학교 체육관에서 제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김병태 교장(여덟번째)을 비롯해 야구부, 재학생,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해 축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우승 환영식

광주일고는 14일 오후 5시 학교 체육관에서 제64회 황금사자기전국고교야구 우승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환영식에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동창회와 학부모, 광주일고 1·2학년 재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야구부의 우승을 축하했다.

안순일 교육감 등 700여명 대회통산 5번째 우승 축하

이날 환영식에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동창회와 학부모, 광주일고 1·2학년 재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야구부의 우승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일고 선수단의 우승과 우승컵 반납에 이어 김병태 교장이 선수단에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환영식 분위기를 한껏 고조했다.

6홀 도는 골프대회 LPGA '모조6' 대회 자메이카서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모조6 대회가 15일 밤(한국시각)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의 시나몬힐 골프장에서 이틀간 열린다. 총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돼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송희(22·하이트)가 출전하며 청야니(대만),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커, 모건 프레셀(이상 미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우승에 도전한다. 대회 방식은 먼저 16명의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 상위 8명이 차례대로 자기와 맞대결할 선수를 고르면서 예선 1회전 대진이 결정된다.

1회전이 끝나면 1회전 성적을 바탕으로 1위부터 16위까지 순위를 정해 다시 상위 8명이 순서대로 자신의 맞대결 상대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수들 세 명씩을 차례로 상대하게 된다.